

더 키친 : 2015 경기창작센터 그룹전
2016.2.25-4.06 | 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

* 작업노트

오유경

나의 작업은 예술과 자연의 관계, 에너지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다. 작품 활동의 목표는 인간중심적이고, 안정지향적이며, 고정적 시선을 넘어서, 다양한 힘과 생각을 통해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변형(Metamorphoses)하는 상상을 더해 시적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무겁고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세상의 모든 인공물들이 그리 튼튼하거나 깊지 아니하다는 것을, 종이컵, A4 지, 밀가루, 헬륨 등 가벼운 사물들을 가지고 아이러니하게 표현하였다. 최근에는 재료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물질적인 재료에서, 빛, 공명성, 투명성 등의 비물질성을 찾는 작품들을 진행중이다.

이준

세상은 요지경 이라는 말이 있다. 요지경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하나로, 확대경을 장치해놓고, 여러 가지 그림을 돌리면서 보는 어린이들의 놀이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은, 요지경 속의 확대경을 통해 보이는 여러 그림들이 세상만사처럼 다양하고 복잡함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확대경을 통한 요지경보다는 만화경에 가깝다. 만화경은 중국말로 일만 만, 빛날 화, 보일 경으로 단 하나의 이미지도 반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만화 (만개의 그림)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작업을 통해서 보이려는 현대인의 만화경은 안경이다. 각기 다른 색실과 패턴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만개의 그림 즉 만화경을 안경으로 대변하고 있다. 안경 알 위에 표현되는 이미지나 패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의 개인의 가치관을 개인의 주관이라는 시선으로 표현된다.

쉽게 하는 말로 인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 즉,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 개인의 개성 즉 그들의 원하는 것 혹은 선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백지 상태일 수는 없다. 인간이 자라면서 주변환경이나, 부모, 친구, 주변인들의 이야기나 견해 등을 흡수하게 되고, 미디어나 언론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얻게 된 정보와 개인의 취향이 합쳐져서 한 개인의 주관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 주관이라는 것은 항상 바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 주관 안에는 편견,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 같은 어긋난 기준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번 작업에서 나는 개인에게 각각의 모두 다른 모양과 색의 안경을 씌웠다. 이 안경들은 모양도 색도 모두 다 다르다, 안경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는 각기 다른 주관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의 주관과 가치관이 정답이 아니지만, 그 개인에게는 정답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잣대를 삼는 삶을 표현하려고 한다. 어떤 이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빨강계 느끼고, 어떤 이는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이 노랗다고 생각한다. 한국 속담 중에 “대롱으로 하늘을 보다” 라는 말과 “우물 안 개구리” 라는 표현이 있다. 전자는 빨대라는 아주 작은 동그라미 구멍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좁은 식견을 가진이를 뜻하고 후자는 우물 안에 앉아서 우물의 모양으로 세상을 보는 좁은 시야를 가진 개구리를 뜻하는 말이다.

만화경으로 대변되는 안경을 통해서 사람들 마다 가진 좁은 식견과 시야로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각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와 다른 타인의 기준은 틀림이 아닌 다름임을 나타내려고 한다.

경기창작센터와의 인연은 다른 입주작가 분들보다는 조금 늦은 5 월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처음 해보는 입주 생활에 기대에 가득 차서, 첫날 방문을 여는데, 상상한 것 보다 더 넓고 좋은 방에 경치까지 더해진 작업실은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3 시간 가량 걸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센터 가는 길이, 여행가는 길처럼 즐거웠다. 시끌시끌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어느덧 센터에 도착하고, 조용한 센터 안에서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다. 조금 늦게 시작한 레지던스라 더 많이 즐길 수 없어서 아쉬움이 가득한 2015 년 입주였다.

Dilek Acay

The scientists try to figure out what makes us human. What is the little difference makes the huge different? How big is the gap between animal and human being? The some non-human beings such as orangutans, chimpanzees or apes are so much like us. It is hard not to feel deep connection. In the past our ancestors were part of the nature now we define it 'Wild'. Creation of culture and social values declare what the modern human is. Is he still part of the wildness? How does he define his modern existence?

홍란

악어는 무서운 포식자이며 난폭하고 공격적인 동물이다.

자기 몸집의 배가 되는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과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단단한 가죽을 두르고 있다. 악어들이 무리 지어 영겨져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이 풍경은 공포감을 자아낸다. 고깃덩어리를 위로 던지면 이들은 순식간에 한 점으로 몰려든다. 복잡하게 영겨있는 이 모습이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과 생각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내가 다루는 악어의 모습은 인간의 욕심 앞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다. 이 악어는 개인의 욕망 앞에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다. 가죽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장면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다. 살아있는 상태로 긴 송곳을 이용해 머리 한가운데부터 척추 꼬리 끝까지 집어넣는다. 악어는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잔인하게 희생당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며 고가의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악어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다 우연한 계기로 악어의 모습과 인간의 욕망을 그려낸 산수화가 동시에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작업 속 악어 등가죽의 돌기는 산수화 속 풍경으로 대체된다. 동양 회화에서는 산수화는 영적 세계, 신선이 사는 곳으로 표현했고 문인들은 속세를 떠나 모든 것을 초월해버린 공간이라고

여겨 산수화로서 이상향에 대한 욕망을 아름다움으로 풀어내어 그 것을 대신했다. 하지만 산수는 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화폭 안의 가상공간일 뿐이다. 이상향이라는 수식어로 포장된 산수화의 도상은 오려진 혹은 잘려진 형태의 악어가죽들로 덮여있다. 오려진 악어가죽들은 모이고 모여 가상공간의 이미지로 흠어진다.

정재식

라이프니치의 모나드 그리고 정재식의 모나드

라이프니치는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고에 따라 지각과 욕구를 지닌 모나드들을 구별하는데 식물처럼 기억이 없는 모나드들, 동물처럼 기억을 지닌 모나드들, 인간처럼 이성과 통각 즉, 반성된 의식을 지닌 모나드들로서 결국, 신이 미리 정한 법칙에 따라 모나드의 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정재식의 모나드는 라이프니츠와 서양의 종교적 모나드와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서양에서 생각하는 미적 기준과 동양사상의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양의 미(美)의 기준은 불변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상은 모나드의 개념과 동일시 된다. 그러나 동양의 미(美)의 기준은 변화에 기초한다.

동양사상의 관점에서의 모나드는 변화라는 범주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모나드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요소가 <형이상학적 점> 즉, 눈에 나타나지 않은 정신적인 세계를 실체라 한다면 정재식의 모나드는 <형이하학적 점>으로 서양의 모나드와 배치되는 그런 모나드를 말한다. 서양의 모나드처럼 독립적이거나, 물체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창(窓)이 있고 소통한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또한 도구를 통해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심지어 소리로 모나드를 확인 할 수 있다.

정재식의 모나드는 생성, 변화(생존), 소멸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모나드다.

다시말해 변화무쌍한 그런 실체를 말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같이 존재하며 단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이다.